기아 경유차량 '고맙다 저유가'

기름값 큰 폭 하락에 판매량 급증 … 스포티지 한달 새 2,200여대 팔려

버스·트럭 등 상용차 판매량도 54% 증가

한때 휘발유값을 웃돌던 경유값이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경유차량들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차량(CUV), 미니밴(CDV) 등 레저용 차량(RV)과 트럭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경유용 스포티지의 경우 10월 한달 동안 2천236대가 판매돼 9월 1천736대보다 28.8%(500대) 증가했다. 경유용 1t 봉고트럭은 10월 3천664대가 팔려 전달 2천811대에 비해 무려 30.3%(853대)나 늘었다.

참신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기아차 CUV 신차인 쏘울은 9월 판매량보다 276.4%나 늘어난 4천404대가 팔렸다.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안에 경유용 쏘울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차의 미니밴 카렌스는 한달 전보다 20.7% 증가한 1천4대가 출고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기름값이 안정되면서 고객들이 다시 경유차량이나 RV 차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쏘울 등 최근 출시된 차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도 판매회복에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완성차업체의들도 10월에만 RV 차종을 2만187대를 판매해 전달보다 27.5%나 실적이 늘었다.

현대차 SUV인 투싼은 한달새 79.2%나 증가한 2천536대가 팔렸고, GM대우 윈스톰의 판매량은 755대를 기록해 전월 대비 22.2% 증가했다.

국내 업체 5개사의 RV 월별 판매량은 올해 1월 2만2천896대로 시작했지만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지난 6월 1만3천163대까지 주저앉았다.

지난 7월 2만595대로 '반짝' 상승했던 RV 판매량은 지난 8과 9월 각각 1만5천여대 선에 그치면서 부진을 거듭했지만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들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부진했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버스 및 트럭 판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달 국내시장에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판매한 대수는 2만2천33대로, 지난 9월보다 53.9%나 실적이 뛰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0.4% 가량 줄어든 판매량이지만 올해 저조했던 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다.

최근의 상용차 판매 회복세는 해외시장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달 국내 업체들은 1만1천874대의 상용차를 해외로 수출해 작년 10월보다 41.2%, 지난 9월보다는 68.3% 가량 늘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산업수요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외 상용차 판매가 늘어난 것은 국내 업체들이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달 조업을 정상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계 분해 열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11일 열린 '2008 제 3회 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시험에서 기계 분해를 하고 있다. 순천제일대 등에서 열린 이번 시험에서 광양제철소 응시직원 3천500여명 가운데 1천648명이 합격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주 아파트 건설 92% 줄었다

올 인·허가 815가구에 그쳐 … 10대 건설사 전국 분양도 '반토막'

지방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건설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경우 미분양아파트 적체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물량은 81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천137가구)에 비해 91.5% 급감한 것으로, 미분양 적체 등 주택경기 위축에 따라 아파트 건설 규모가 10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었다.

전남도 올해 아파트 건설 인·허가 물량이 4천593가구로, 전년 동기(9천970가구)보다 53.9%나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주요 건설사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올 들어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국내에 분양한 아파트 물량은 총 4만5천137가구로 파악됐다.

이같은 분양 물량은 이들 10개사가 연초에 계획한 9만3천822가구의 48% 수준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급 회피 현상이 뚜렷했다.

이들 10대 건설사는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 2만3천285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실제 공급 물량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라 상당수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경우도 11월 현재까지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물량은 공공과 민영을 통틀어 총 21만5천538가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31만6천549가구)보다 31.9%(10만1천11가구) 줄어든 것으로, 10대 건설사는 물론, 중견 및 중소건설사의 공급이 동반 감소세를 나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역 유망 中企 25억 긴급 지원

광주시 업체당 3억 가량

광주시가 환율상승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유망 중소제조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유망 수출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원재료 매입과 임금, 이자 지불을 위한 운전자금(運轉資金) 2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당 3억원 이내, 연리 4%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광주 시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대상이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수출실적과 2007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 활동, 전시·박람회 참가한 업체 등이다.

단, 지난해 수출진흥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시비와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기금 50여억원 가운데 일부다.

시는 12~21일까지 업체별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연내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차 오피러스 브랜드 가치 급상승

美 소비자 조사 '최고 가치상' 수상

기아차의 최고급 승용모델인 오피러스가 미국에서 잇단 호평으로 기아차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기아차는 11일 오피러스(수출명·아만티)가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직 비전이 조사한 '2008 종합가치지수' 평가에서 대형차 부문 최고가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피러스는 종합가치지수 평가에서 778점을 얻어 포드 토러스(746점), 시보레 임팔라(737점), 닛산 맥시마(729점), 뷰익 라크로스(684점) 등 경쟁모델을 제치고, 2005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피러스는 지난 2005년 JD파워의 '자동차 품질 및 디자인 만족도(APEAL)'에서 대형차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9월에는 스트래티직 비전의 '스마트그린 인덱스 조사'에서 대형차급(Large Car) 최우수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기아차는 2003년 10월 오피러스를 미국에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월까지 총 5만8천108대를 판매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위안화 입·출금 가능 光銀 예금 상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1일 중국 위안화로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예금을 출시하는 등 외환 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위안화 예금은 중국 여행이나 유학, 무역 등에 따른 위안화 보유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출시됐다.

그동안 광주은행에서는 위안화를 직접 입출금할 수 없어 달러화 등으로 환전하고 나서 입출금을 해야 했다.

광주은행은 또 대만달러(TWD)와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필리핀 페소(PHP), 말레이시아 링기트(MYR)등 4개국의 외국통화에 대한 환전업무도 개시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따른 위안화 보유 고객 증가세에 발맞춰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요즘처럼 환율 변동이 극심할 때 위안화 거래를 활용한 환테크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기-대기업 협의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처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제도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하남농협 산정동 지점 신설

광주시 하남농협(조합장 박종면)이 10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지점(지점장 송정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사진〉

364㎡(110평)의 사무실을 갖춘 산정동 지점은 하남 2지구 신택지 개발지구내 입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면 하남농협 조합장은 "고객중심의 감동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농협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